

#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부채 대폭 낮춰

### 지난해 광주도시공사 3676억·전남개발공사 5622억 전국 지방공기업 부채 4년 연속 1... 부채비율 50%대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4년 연속 감소하며 지난해 부채비율이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대표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전남의 유일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도 부채금액을 대폭 낮췄다.

4일 행자부에 따르면 2016년 413개 지방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는 6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7.3%포인트 낮아진 57.9%였다. 부채비율이 50%대로 내려간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자산총액은 전년보다 3조원 증가한 185조9000억원, 자본총액은 전년보다 6조9000원 늘어난 117조6000억을 각각 나타냈다.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도 전년 대비 20.3%포인트 감소한 116.6%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부채비율 목표인 120%를 한해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전체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보다 6500억원 감소한 2585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수도 분야에서 1조2352억원, 도시철도 쪽에서 8420억원의 적자가 각각 발생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부채액이 지난 2015년 280억원에서 2016년 308억원으로 약간 증가했다.

반면 도시개발공사는 분양 호조, 부채 감축에 힘입어 2015년보다 5508억원(72.6%) 증가한 1조3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2015년 5063억원에 달했던 부채액이 3676억원으로 줄어 부채율을 101.9%까지 끌어내렸다. 조만간 100%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전남개발공사는 부채가 2014년 6259억원(부채율 125.59%)에서 2015년 5958억원(118.13%), 2016년 5622억원(105.68%)

으로 3년 연속 감소세에 있다. 대규모 적자 요인이었던 여수경도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잔여 공사채 상환과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른 재무건전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지방공기업 유형별로 결산 결과를 보면 도시개발공사 분야의 총부채는 3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는 3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도시철도공사 분야의 부채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5조9000억원으로, 작년 한 해 8420억원의 경영손실을 봤다. 2016년 매출액은 1316억원 증가했지만, 낮은 운송요금, 무임승차 손실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달간 폭우... 물바다 된 中 구이린 4일(현지시간) 폭우로 물바다가 된 중국 광시장족자치구 구이린에서 구조대원들이 고무보트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중국 남부 지역에 한달 가까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현재 광시장족자치주와 후난성 등 8개 성에서 33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도 956만 명을 넘어 188억9000위안(한화 3조3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재해당국은 밝혔다. /연합뉴스

## 광주시의회 민주-국민의당 대립 ... 추경안 심사 차질

### 민주 3개 상임위 단독 개최 국민의당 "불법·원천무효"

광주시의회의 정당 간 대립이 파국으로 치닫으면서 광주시의 추경안 심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결특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4일 상임위원회를 단독 강행했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행정자치와 환경복지,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열어 추경예산심사에 들어갔다.

예초 이들 3개 위원회는 이날 오전 개회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예결특위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소속의원만 출석,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 측은 "추경 제안설명을 듣자는

국민의당 측의 의견을 수용, 의장에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들이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상임위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한 만큼 추경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상임위를 단독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측은 "시장과 시교육감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추경제안설명을

듣지 않아 추경안이 본회의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진행한 상임위는 불법이고 원천무효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예결특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 측은 회의규칙에 따라 다수당인 민주당이 한 명이라도 더 많거나 민주당 4명, 국민의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당은 위원장은 민주당이 하는 대신 민주당 4, 국민의당 5명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양 당이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조속 제정돼야"

### 전남도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 예결위원장에 전정철 의원

전남도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문철 의원(여수1)은 "제주 4·3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10·19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69년이 지나 고령이 된 당사자와 유족의 사정을 고려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반란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역사적 비극 사건이다.

특히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1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여수·순천 10·19사건을 다룬 특별 법안은 18·19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 4월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전정철 의원(담양2), 부위원장에 이홍식 의원(장흥1)을 각각 선출했다.

전 위원장은 "전남도 재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서민 사색을 추진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도록 심사하겠다"며 "교육예산도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오는 17일 전남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내년 6월30일까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FTA 피해 어업인 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도 다음달 29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FTA 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어업인과 어업법인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보전금으로, 가오리·고등어·

까나리(양미리 포함)·날개다랑어·잠다랑어·민대구·복어·아귀·전갱이·전복 등 10개 품종에 지원된다.

지불금은 어업인은 3500만원, 어업법인은 5000만원까지다.

폐업지원금은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한도액은 없다.

신청은 어업허가 또는 양식면허 등을 받은 시군에 하면 된다. 근해어업은 선적지 시군에 신청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세계수영대회 자문위원회 창립총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는 5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자문위원회 창립총회를 한다.

이날 창립총회는 위촉장 수여, 조직위원장 인사, 자문위원장 선출, 광주수영대회 홍보영상 상영, 조직위 현안 업무 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문위원회는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희돈 체육기자연맹 회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최규철 광주에총 연합회장, 김재영 광주 기독교연합회회장, 윤택립 전남대병원

장 등 중앙과 지방 주요인사 6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체육, 관광, 의료 등 각 분야별 직능단체와 조직위, 광주시 간을 연계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차질 없는 실무적 준비는 물론이고 시민의 관심과 범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오는 2019년 7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207개국 1만5000여명이 참가해 남부대, 진월테니스장, 장성호 등지에서 개최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113년 전통의  
템마크 오티콘보청기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062-364-8800**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 2017년 필리핀 주니어 체험 영어 캠프

### 모집 안내

캠프기간

2017년 7월 30일(일) ~ 8월 26일(토)

모집연령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캠프장소

마닐라 알라방 리조트 전용 등

- 24시간 상주 현지 담임 선생님
- 맞춤형 멘토멘 수업, 생활 영어 체험, 현장 영어 공부
-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영어 캠프 선생님
- 독특하고 다양한 액티비티

상담 문의

070.8286.8726

epoweredu

블로그 : http://blog.daum.net/e.power